



2013 새생명 축제 막 내려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는 소중한 사역

지난 12월 15일 주일 3부 예배는 새생명 축제에 초청 받은 새신자들을 위한 초청예배로 드려졌다. 11월 10일부터 시작한 2013년 새생명 축제의 대단원을 이루는 순간이었다. 이 기간 동안 새신자로 등록하여 교육을 받는 성도를 포함 45명 정도의 새신자가 참석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을 그린 스킷드라마를 함께 했다. 주님의교회 가족이 된 새신자들은 예배가 끝난 뒤 제3집회실에서 교구 목사와 만나는 시간을 가졌고, 교회에서는 성경을 선물로 전달했다.

새생명 축제는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여 새생명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주님의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이다. 11월 10일 전도 대상자 카드를 배부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11월 18일부터 30일까지는 2030 부부교구를 포함 10개 교구의 300여 명의 성도가 날짜 별로 노방전도에 참여했다. 이어 12월 6일에는 ‘새신자를 위한 초청의 밤’이 펼쳐져, 아버지학교 대표인 김성묵 장로와 어머니학교 대표인 한은경 권사를 초청, 배우자에게 복음을 권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함글함글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10개 교구 300여 명의 성도가 교대로 종합운동장 역 앞에서 따뜻한 차와 전도지를 전했다.

쉽고 재미있는 기독교의 역사 15

중세 십자군 운동에 관한 약사 (略史)

참회의 마음으로 시작된 십자군 운동의 직접적인 계기는 일반적으로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셀주크 투르크가 성지를 장악하고 순례자를 박해하며 비잔틴 제국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차 원정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하였으나 나머지 원정은 모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학자들에 따라서 십자군 운동의 횡수를 다르게 정의하지만 여기서는 여섯 번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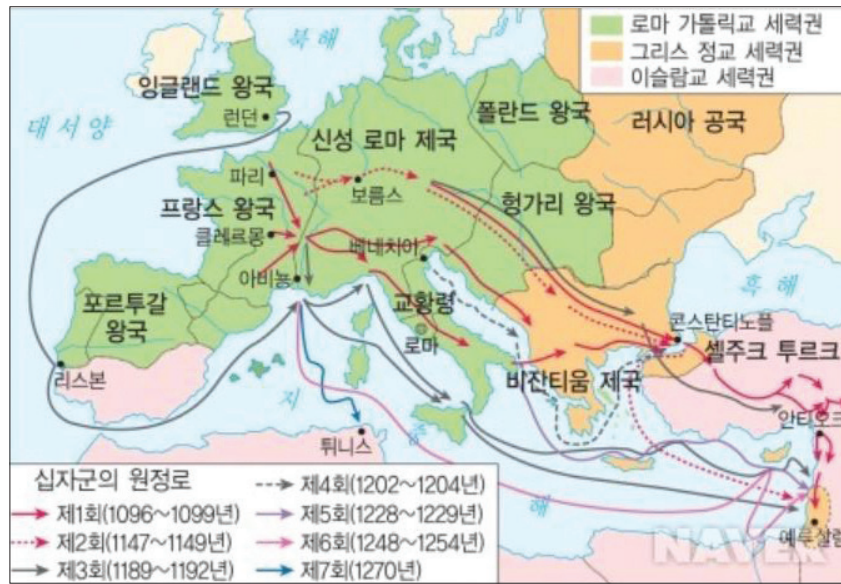
제1차 십자군 운동(1096-1099)

교황 어반 2세의 연설에 자극받은 프랑스와 독일의 농민들을 중심으로, 미비한 훈련과 열악한 전투장비로 무장된 최초의 십자군들은 독일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약탈하는 것으로 그들의 행군을 시작했다. 1097년 콘스탄티노플에 집결한 십자군들은 니케아(1097년)와 안디옥(1098년)을 수복하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탈환한다(1099년 7월 15일).

폴란드의 볼드윈의 지휘하에 십자군들은 행군을 계속하여 초대 시리아 교회의 중심도시였던 에데사(Edessa)를 탈환하는 승리를 거둔다. 이로써 십자군 원정은 끝나고 니케아는 비잔틴 황제의 직할 영토로 이양되고 나머지 지역은 십자군이 직접 주둔하게 된다. 군사적 의미에서 유일하게 승리하였던 십자군이었다.

제2차 십자군 운동(1147-1149)

1147년, 에데사가 시리아의 아랍 무슬림들에 의해 다시 정복되



십자군의 원정로

자, 클레르보의 버나드(Bernard of Clairvaux, 1090-1153)의 촉구에 자극을 받은 프랑스의 루이 7세와 독일의 콘라드 3세가 주도한 십자군 원정이다. 그러나 제2차 십자군은 에데사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고, 다만 다마스쿠스에서의 전투(1148년)에서도 비참한 패배를 맛보아야만 했다.

제3차 십자군 운동(1189-1192)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이 술탄 살라딘에 의해 침공을 당하자, 두로(Tyre)지역의 대주교에 의해 주창된 제3차 십자군 운동은 영국의 '사자왕' 리처드 1세가 참전한 것으로 유명하다. 기대와는 달리 십자군들은 예루살렘 지역의 탈환에 실패하고 일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거하는 결과로 만족해야만 했다. 중세 유럽의 최강자였던 사자왕 리처드와 동시대 이슬람의 패권을 쥐고 있던 술탄 살라딘의 대접전이었다.

제4차 십자군 운동(1202-1204)

1198년에 즉위한 이노센트 3세(1198-1216)에 의해 주창된 제4차 십자군 운동은 전체 십자군 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십자군을 지원하기로 했던 베니스의 제정적 후견인이었던 단돌로(Dandolo)의 지원이 불확실해지자, 애초 이집트의 무슬림들을 공격하고자 했던 계획을 바꾸어 십자군들은 동방 기독교 지역인 달마티아(Dalmatia)를 거쳐(1202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면서(1204년) 동방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애당초 소원한 관계에 있던 동서방 교회는 분열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다.

제5차 십자군 운동(1217-1229)

교황 이노센트 3세의 주창과 추기경 펠라기우스의 주동으로 시작된

제5차 십자군 운동은 이집트의 아랍 무슬림에 대한 공격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십자군들은 이집트의 항구도시 다미에타(Damietta)를 점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1218년), 카이로로 이동하던 도중 복병을 만나 패배하였다.

제6차 프랑스의 십자군 운동

(1248-1254, 1269-1272)

프랑스 황제 루이 9세에 의해서 두 번에 걸쳐 전개된 '프랑스의 십자군 운동'은 모두 이집트의 무슬림을 공격대상으로 삼았지만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15,000명의 정예군대를 이끌고 항구도시인 다미에타를 다시 점거하였지만(1249년), 이듬해 이집트의 아랍 무슬림에게 공격을 받고 패배했다. 패전의 대가로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한 뒤 프랑스 십자군 군대는 가까스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 일단 퇴각했던 십자군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력을 재정비하고 다시 북아프리카의 튀니지를 공격하였으나 역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결국 프랑스의 루이 9세는 북아프리카에서 임종을 맞이하였다(1270년).

이상과 같이 6번의 십자군 운동에 대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십자군 운동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십자군 운동이 시작된 진정한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또한 십자군 운동의 역사적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다음 호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강찬 목사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53

箴言 (잠언 Proverbs)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잠언 1:1)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전도서 12:9)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교훈이 되는 짧은글”을 뜻하는 라틴어 Proverbium에서 借用(차용)된 영어로 “비유, 수수께끼, 속담, 金言(금언)”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구약성경 잠언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스라엘 최고 지혜자인 솔로몬에 의해 지어졌으므로 the proverbs of Solomon으로도 불린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箴(바늘 잡, 경계할 잡): “대나무”를 뜻하는 竹(대 죽, 대죽 머리)와 “두루, 널리”의 뜻을 지닌 咸(다 함)이 결합되어 <가늘게 다듬어진 대나무를 널리 두루 사용하니 바늘이다. 이러한 바늘로 찌르듯 경계한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경계하도록 간하는 箴諫(잠간), 깨우쳐 훈계

하는 箴戒(잠계), 훈계하여 바로잡는 글 規箴(규잠)등의 단어가 있다.
★言(말씀 언): “날카롭다, 분명하다”의 뜻이 있는 辛(찌를 건)과 口(입 구)를 합쳐 <찌르듯 날카롭고 분명하게 입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졌다.

함글함글

2014년 목회 주요 정책 결정

2014년 목회 중점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2014년 주님의교회 목회의 중점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롬 5:10-11)로 결정되었다.

지난 11월 22일, 23일 이틀 동안 진행된 정책당회에서 2014년 교회 목회의 주요 방향이 논의되었고, 그 이후 세부적인 검토와 보완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주요 정책으로는 첫째, 청소년 집중사역을 지속하는 것에 두었다. 청소년 공간과 시설을 확보하고,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을 강화하며, 부모와 교사교육을 체계화하는 것 등이다. 둘째, 통일 선교 사역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선교 헌금을 지원할 뿐 아니라, 통일교육의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사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셋째,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기로 했다. 제자화 사역을 완성하는 일이 포함될 것이다. 넷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새로운 교회 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회 모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과 함께, 교역자의 이동에 따라 사역 조직에 조정이 이루어졌다. 아래는 사역위원회 별로 새로 조정된 제직 명단이다.

함글함글

구분	위원회	간사장로 (2013)	간사장로 (2014)	분과위원회	위원장 (2013)	위원장 (2014)	교역자 (2013)	교역자 (2014)
사 역 위 원 회	목양	김재현	김창안	예배 음악 소그룹 2030부부 양육 미디어	박중순(2) 김성구(2) 지유철(1) 동현수(1) 김유호(1) 김학원(1)	김성구 김창안 지유철 동현수 김유호 김학원	공광승 김용웅 조정현 임창진 최방은 장수현	공광승 김용웅 조정현 임창진 최방은 장수현
	교육	이영자	김한중	어린이 청소년 청년(2030) EM	손천숙(1) 박대길(1) 조원호(3) 박재준(1)	손천숙 박대길 이용수 박재준	권대선 권대선 정재상 존 슈나이더	신임 신임 정재상 존 슈나이더
	섬김	김양자	김양자	봉사 복지 국내선교 문화스포츠선교 통일선교 해외선교	김한중(3) 김창안(2) 조성득(1) - 조성득(1)→ 정종국 신정웅(1)	강진식 노봉옥 조성득 장일형 정종국 박중규	이강찬 유성훈 홍성욱 - 김정형 유기영	김대환 유성훈 홍성욱 김용웅 김정형 유기영

부설	국제교육선교센터 (2013년)	박원호	센터운영팀 교육선교연구소 예수친구사역원 12단계성경연구원 청소년사역원	최상인, 최종명, 박재준, 김유호, 손천숙, 조광민 박재준, 최봉도, 연구원1명 최종명, 조광민 김유호, 김정형 손천숙, 박혜성
----	---------------------	-----	--	---

2013년	당회서기 : 최상인	재정위원회 : 박중규	감사위원회 : 김완중	선임행정 : 공광승	목회기획 : 조광민
2014년	당회서기 : 조원호	재정위원회 : 박중순	감사위원회 : 신정웅	선임행정 : 공광승	목회기획 : 조광민

임시 공동의회 열려

지난 12월 11일 수요일예배 후, 500여 성도가 참여한 가운데 임시 공동의회가 개최되었다.

박원호 담임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번 임시 공동의회에서 2013년 추경안이 박종규 장로의 발의로 안건에 올라, 좌중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어 지난 임시 제직회의에 보고되었던 사무국 금전 사고에 대하여, 조사대책위원장인 김창안 장로의 보고가 이어졌다.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 제직회의 보고사항에 바탕을 둔 가운데, 당회원들의 적극적인 책임의식과 헌신으로 손해액을 상회하는 723,500,000원이 특별 헌금으로 보전되었음이 추가로 보고되었다.

보고 후 질의응답을 통해, 후속 대책 및 이에 대처하는 교회 안의 영적 자세에 대한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다. 특히, 사고에 대한 책임의식의 문제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

한 질문이 조목조목 이어졌으며,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로 조사대책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데 따라, 후속 대책을 강구하는 모임은 폭넓은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박원호 담임목사는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뜻밖의 사고가 영적 태만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종이라고 보고, 모든 것이 담임목사의 책임”임을 밝히고, “단지 우려하는 것은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시급히 평정을 회복하는 것이며, 스스로도 이번 사건을 통한 교훈을 깊이 새겨서, 낮은 자세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당회원 전원의 사죄의 인사로 회의를 마쳤다.

함줄함울

성경인물과 함께 떠나는 힐링 캠프

어린이 교육목회원 주관 토요일음학교

어린이 교육목회원에서 주관하는 토요일음학교 ‘성경인물과 함께 떠나는 힐링캠프’가 지난 10월 19일 토요일부터 11월 16일 토요일까지 5주에 걸쳐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들 11명과 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성경인물과 함께 떠나는 힐링캠프’(이하 ‘힐링캠프’)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듯이 우리와 똑같이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겪는 속에서 그들

이 만난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 또한 깊이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정은 제1회 ‘다윗’편으로 “좌절감의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하나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치유의 손길을 체험하길 소망하며 기도로 다양한 소 프로그램들(놀이치료, 미술치료, 이야기치료, 요리치료, 말씀치료, 힐링드라마, 대인관계 실습 등)이 진행되었다.

문규호 전도사



교회용어, 이것만은 고치자 > 예배, 예식 용어 편 1

사회자(X): 인도자(O)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을 가끔 사회자라고 할 때가 있다. 사회(司會)라는 말은 회의나 의식을 진행하는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문화권에서는 사회자라고 하면 마땅히 일반 회의의 진행자를 의미한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아닌 결혼예식이나 임직식 같은 인간 중심의 의식에서는 진행을 맡은 사람을 사회자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현장에서 사회자라는 명칭은 경건성의 결여를 느끼게 하므로 단순한 사회자(presider)의 개념을 넘어 예배 인도자(worship leader)로 부름이 타당하다. 본 교단 1998년 총회에서 통과된 표준 예식서에는 모든 예배의 진행자는 인도자(引導者)로, 성례전과 같은 예전의 경우는 집례자로 표기하고 있다.

성가대(X): 찬양대(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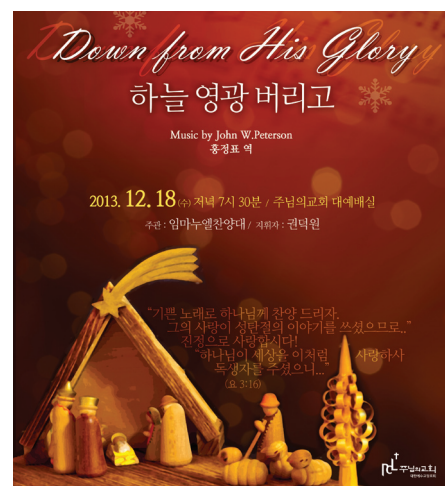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전담한 찬양대를 ‘성가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1960년대까지 한국 교회에서는 찬양대라는 이름이 통용되었고 성가대라는 이름은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일본의 ‘세이카다이(聖歌隊)’가 직수입되고, 흑인영가와 복음송을 합하여 ‘성가곡집’이라고 이름붙인 책들이 출판되면서 성경에도 없는 ‘성가대’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 ‘성가’라는 말은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서 부르는 노래를 뜻하고, ‘찬양’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의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가대’가 아닌 ‘찬양대’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X): 설교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O)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는 한 인간이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를 위하여 어떤 사실이나 바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빌고 원하는 뜻을 표현한 말이다. 이러한 표현이 설교 가운데 들어가도 좋은가에 대해서 본 교단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끝에, 1981년 65회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보고서를 채택했다. 첫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야 하기에 설교에 인간의 기도식 기원이나 기도 등의 형식을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설교는 설교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축도는 축도대로 하는 것이 좋다, 셋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의 사용은 회중에게 자극을 주고 흥분시켜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고는 안 되게 만들어 설교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신적 기복 사상을 키워 줄 우려가 있다, 넷째, 이 표현의 남용은 설교의 근본 목적을 흐리게 할 뿐더러 회중들로 하여금 설교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반사적으로 “아멘”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 보고가 총회에서 아무 의의 없이 채택되어, 이후 이 표현은 설교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 / 함줄함울 정리

2013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늘 영광 버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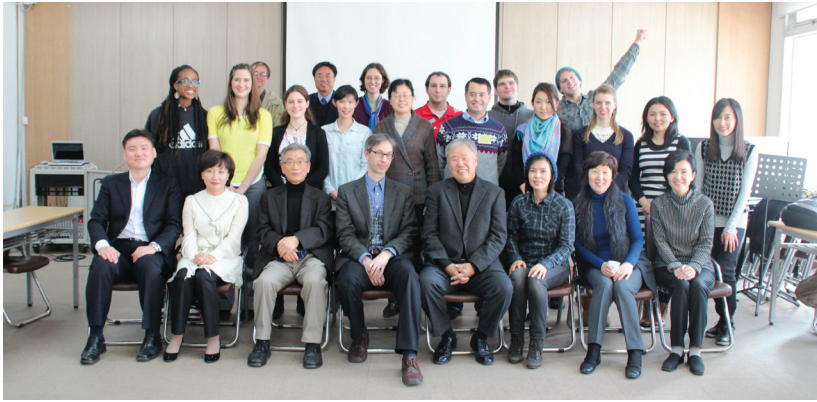


12월 18일 저녁 7시 30분 주님의교회 대예배실에서는 임마누엘 찬양대(지휘자 권덕원) 주관으로 2013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연주되었다.

존 피터슨이 작곡한 곡들로 구성된 이 칸타타에서는 주제곡인 “하늘 영광 버리고”와 12곡이 110여 명으로 구성된 임마누엘 찬양대의 열정적인 연주로 펼쳐졌다. 이 곡은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는 풍경과 과정을 찬양하는 곡들로 구성되었다. **함줄함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영어예배팀 토요한글교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영어예배팀 토요한글교실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지난 12월 7일(토) 제3집회실에서 열렸다.

토요한글교실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모임으로, 존 슈나이더 목사 주관으로 매주 10여명의 교사들이 50여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며 섬기고 있다.

이 모임은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또한 한 달에 한번 씩 한국영화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제3회 대회에서는 미국인 사라 윌슨(영어교사, 한국 5년 거주)

양이 “한국의 선물”이란 주제로 1등 상을 받았다. 낯선 한국에 와서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 양부모님이 생겼고, 그들의 사랑으로 믿음 생활을 더 잘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였다. 이 자리에는 양부모님이 참석, 축하해 주어 기쁨을 더하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 특히 인상적인 장면은 미국인 카렌 페이지 양이 연출했다. 카렌 양은 작년에 1등상을 받았던 뛰어난 한국어 실력으로 올해에도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카렌 양은 ‘극적인 한국드라마’에 관한 내용을 “랩”으로 불러주어 가장 많은 박수와 함께 인기상을 받았다.

김기창 안수집사

찬양은 경건한 예배의 초석

10년 만에 살롬 찬양대를 떠나는 이동훈 지휘자

3부 살롬 찬양대를 지휘했던 이동훈 안수집사가 12월로 3부 찬양대의 지휘자 자리를 떠난다. 2004년 1월부터 지휘를 시작한 이래 만 10년 만이다. 그는 주님의교회 전에도 소망교회에서 24년이나 찬양대의 지휘자로 사역한 바 있다. 그는 찬양은 경건한 예배의 초석이라고 말하면서, “요즘 예수는 믿으나 예배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찬양은 예배의 의식을 경건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찬양대가 올바르게 서야 예배가 올바르게 설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지난 10년간 찬양대를 이끌어왔다. 찬양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영적인 기본은 물론, 음악적인 하모니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야 은혜를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소망교회에서 주님의교회로 옮기면서, 주님의교회 목회자의 임기가 있는 것을 보고 지휘자도 임기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번에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작곡을 전공한 그는 찬양대 지휘를 계속해왔으며, 대학



에서는 작곡을, 대학원에서는 지휘를 가르치는 한편, 한국찬송가작가총연합회의 공동회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3부 살롬 찬양대는 110~120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일 오후에 1시간 20분, 주일 오전에 20분 정도를 연습한다. 2014년 1월부터 살롬 찬양대의 지휘를 맡을 지휘자는 개봉교회에서 지휘자를 역임한 강진명 집사(47세)로,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작곡학을 전공했다.

함글함글

로템나무

겨자씨에서 일어난 일

12월초 목요일 저녁, 가정의 기일로 날씨가 겹친 한가정을 제외하고 다섯 가정이 하남의 어느 숲속의 만찬장에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겨자씨 종파티를 위해서입니다.

주간 모임으로 매주 옮겨 다닌 가족들 동네를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선교를 떠나는 마음으로 어두움을 뚫고 숲 속의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모범생 권집사님 가정과 배집사님 부부가 여유스런 미소로 맞아 주셨습니다.

연초에 두 가정이 겨자씨로 연합하게 되어 다소 서먹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니 모임이 더 편안해지고 따뜻해졌습니다. 두 가정과 연합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각자 가정 형편이 달라도 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삶에 풍성함이 많았습니다.

어린이집 학생 신분인 지호는 겨자씨 모임 개근생입니다. 모임의 상당한 시간을 어린이집 학생이 맡아 주어 인도자의 짐을 덜어 주었습니다. 그가 피운 재물이면 모두 가르쳐 넘어져 버리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11월 겨자씨 나들이도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양수리의 전원 주택에 초청해 주시고 바베큐 듬뿍 준비해 주신 집사님의 귀한 마음에 또한 행복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진리를 체험했습니다.

계획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 12제자와 식사를 했을 법한 식탁에 둘러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을 생각 나질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모두 행복한 마음으로 표정으로 한성전을 이루었지요.

하남 숲속, 만찬장 마감시간에 밀려 나오니 아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냥 헤어질 수 없어 우리 일행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지요. 커피로 봉사해주신 집사님 그리고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집사님... 조명이 밝은 카페

원도우 쪽에 나란히 자리하신 자매님들... 종횡무진 크리스마스 장식을 흔들던 우리 어린이집 학생... 모두 우리 겨자씨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라 생각됩니다.

일년 동안 함께 지어간 하나님 거하시실 성전의 모습이라 여겨 집니다.

“함께 짓는 성전 된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작성하시고 기뻐하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모두 복된 겨자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2:22) 김낙균 안수집사

부르심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샬롬! 사랑하는 주님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교회 초등2부를 섬기고 있는 강동혁 전도사입니다. 저는 매번 도로를 지나가다 견인차를 보면 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했지만 시동이 꺼져버린 자동차와 같았던 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좋은 길로 견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난한 목회자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저희 집은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부모님과 착한 동생과 함께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는데는 제가 목회자 가정의 자녀로 태어난 덕분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셔서 저에게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춤을 출 수 있도록 몸 찬양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매번 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몸 찬양의

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몸 찬양의 은사 덕분에 많은 교회와 단체를 섬길 수 있었고 주님의교회도 몸 찬양의 은사 때문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 지대)에서 낮에는 수색 작전과 밤에는 매복 작전을 하는 수색중대에서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 제 목숨이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게 허락된 현재의 삶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군 제대 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현재 주님의교회 초등2부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저는 시체와도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정도를 가며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혁 전도사

교회 단신

2013년 하반기 입교 세례식



2013년 12월 8일 4부 예배 시간에, 하반기 입교 세례식이 진행되었다. 입교 19명, 세례 42명이 교육을 마치고 이날 입교와 세례 안수를 받았다. 함께 한 성도와 가족들, 입교와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원했다.

2013 성경필독 시상



2013년 한 해 동안 성경읽기 1독 이상, 성경타자 1독 이상, 성경쓰기 1독 이상 성경암송 1장 이상 참여한 교우들을 위한 송년 필독시상 송년회가 12월 18일 열렸다.

섬김과 나눔 죽 배달 마무리



섬김과 나눔의 지역 봉사 사역인 독거 어르신 죽 배달 프로그램의 2013년도 마지막 봉사가 12월 19일에 진행되었다.

늘푸른대학 제5기 종강예배



섬김과 나눔에서는 12월 3일 늘푸른대학 제5기 종강예배를 가졌다. 221명의 어르신들이 한국무용, 찬양, 스포츠댄스, 합창 등을 뽐냈다.

2014 피택자 교육 시작



2014년 피택자 교육이 12월 7일 시작되었다. 피택자 교육은 1, 2, 3차에 나뉘어 진행되며 2014년 6월 22일 창립 기념예배 때 임직식을 가질 예정이다.

교회사역일정

- 12. 22(주일) 성탄 발표회
- 12. 25(수) 성탄절 예배, 유아세례식
- 12. 31(화) 송구영신 예배

- 1. 3(금) 겨자씨와 함께하는 금요기도회
- 1. 5(주일) 신년주일
- 1. 6(월) 정기당회
- 1. 13(월) ~18(토) 신년특별새벽기도회

함글함글 카툰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지?

